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몰아붙인 것이다. 좀 늦었지만 이를 보고 몇 가지 생각을 해 본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 교육을 중시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절절히 강조하곤 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인 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이 바로 서지는 않는다.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교육부의 수장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심사숙고하여 임명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그런데 역대 정부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보면 정권 출범 시의 초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는 무관한 정치인을 임명하기도 하고, '대학이 산업화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경제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또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나 대학 총장을 임명하기도 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어떤 대학 총장 출신의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IT와 영어 교육에 교육의 목표를 두겠다'고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장 경험과 긴 안목의 철학

교육부 장관이라면 교육의 본질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큰 틀의 그림'이 바로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의 효과는 단시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한다. 기껏 IT나 영어 교육을 강조하고 대학을 산업화시키려는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을 두루 갖추고 긴 안목의 교육 철학을 가진 인사가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런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차선책으로는 적어도 초·중등학교의 교직 경력이 있는 인물이 어

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직 경력이 없는데 대학교수가 장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볼 때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이다.

범위를 더 좁히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의 경험은 앞으로의 인성(人性)과 가치관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유하자면 유아기의 교육은 백지(白紙)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주는 사람이 교사이다. 물론 후천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타고난 성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사의 지도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사소한 일상의 습관에 서부터 가치관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원 임금 체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학교는 이런 의미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기보다 전문 지식을 전수(傳授)하는 곳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또 대학생은 이미 어

느 정도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 교화(教化)가 쉽지 않다. 진정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을 생각한다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더 이상 유치를, 맞벌이 부부가 잠시 아이를 맡기는 곳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불거진 사립 유치원 사태 이후 몇 가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고의 인격을 갖춘 훌륭한 인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20대의 젊은 교사가 아닌, 풍부하게 인생을 경험한 중후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대학교수는 인격보다 전문 지식을 가졌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어느 인사가 과거 교육부 장관 시절에 나이 많은 교사를 죄인 취급하듯 퇴직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각급 학교 교원의 임금 체계를 크게 바꾸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을 가장 우대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원, 그 다음으로 대학교수 순서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모이지 않을까? 교직 경험이 전혀 없는 유은혜 장관이 과연 이러한 교육 문제를 제대로 풀어 갈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社說

아직도 '막말' 지방 의원 자질 의심스럽다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거나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전남도의회 A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전남도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도중 질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혜자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위원장 역할이 안 된다"는 등 폭언을 하고 명패와 탁자를 걷어쳤다. A의원의 행동은 감사를 받기 위해 자리한 전남도 간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지켜봤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A의원이 지난 7월 개원 이후 수차례 자신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내 평생에 여자를 모셔 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할 겁니다"라거나 "(내가) 성질이 더럽고 까칠한 사람이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전남도의회는 어제 의장·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A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자체 조사에 착수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광주 모구의회 B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B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자질을 의심 강요하거나 부탁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한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할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빛어진 이 같은 일탈 행위는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민주당이 지역 정가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의원들의 비위가 횡행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윤리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주목받는 베트남 학살과 5·18의 상관관계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문화 페스티벌이 '2018 광주작가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주 막을 내렸다. 작가들은 선언문에서 "광주의 기억과 상처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며 "광주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는 베트남의 소설가 바오 닌(66)이 선정됐다. 바오 닌은 "이번 행사를 통해 5·18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한국 평화의 길은 여러 세대가 오래도록 감내해야 했던 고난과 고통, 희생과 상실의 길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작가 바오 닌은 1969년 17세에 소년병으로 군에 입대해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의 첫 장편 '전쟁의 슬픔'은 전쟁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지 사실적으로 그려 평단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아시아문학상 수상자 선정 직후 언론과의 대화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가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것은 그들이 베트남전(월남전쟁)에 참전해 양민 학살의 실천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이례로운 발언을 한 것이다. 20세기 베트남전과 광주 5·18에 대한 작가로서의 생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부사관들 중 일부가 광주 5·18 때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다"며 "이 부분은 베트남전과 광주 학살이 긴밀히 연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들은 5·18 연구에 대한 여러 갈래 중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조만간 '베트남 학살과 광주 학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교단에서



김진우
일신중 교감

하모니카는 150여 종류가 있지만 기본이 구멍 21개 내외, 길이 17cm, 무게 150g 안팎의 작은 악기이다. 대부분의 관악기가 불어서 소리를 내지만 하모니카는 들숨과 날숨으로 금속판 리드를 떨게 하여 맑은 소리를 낸다. 여러 악기마다 뽑내는 장점이 많지만 하모니카는 몇 가지 좋은 점이 도드라진다. 복식 호흡으로 심폐 기능을 도와주는 건강 악기이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닷가 어디서나 연주가 가능하고, 안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악기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기가 쉽고, 동호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 악기이다.

올해 가을에는 세 번이나 축제에 참여했다. 출연하게 된 계기가 다르고, 청중

세 번의 축제

의 대상은 다양했지만 주머니에 넣어 갔던 악기는 하모니카 하나였다.

첫 번째 참여는 초가을이었다. 함께 하모니카를 배웠던 분이 작은 산골 음악회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고 의중을 물었다. '작다'는 말과 '산골'이라는 단어가 가볍고 좋아서 나섰다. 화순군 춘양면의 외진 산골에 컨테이너 건물만이 한 채 있고 그 앞마당에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난타 2개 팀, 색소폰, 대금, 전자 오르간에 우리 하모니카가 합류했다. 청중은 단 두 명이었다. 컨테이너에 머물고 있는 40대 중반 부부였다. 이 부부는 난타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아내가 아파 이곳에서 자연 치유의 요양을 하고 있었다. 정신은 맑지만 육신이 시들고 있기에 동호인들이 모여 작은 음악회를 마련한 것이다. 금년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살아생전에 천상으로 보내는 이별 공연이었다.

난타는 휘몰아치고, 대금 소리는 깊고 유장하여 부부는 웃고 울기를 반복하였다. 고통도 잠시 내려놓고 고마운 마음으로 평안해 보였다. 새봄의 재회를 기약하고 눈물 반, 연주 반의 공연은 끝났다. 몇 주 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작은

산골 음악회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2018 추억의 총장 축제'에는 하모니카 앙상블 'Red4'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총장로 5가에서 템포 빠른 연주로 시민들과 즐긴 7080의 추억이었다. 회원들이 내년에는 버스커(Busker)가 되어 총장로와 급남로를 넘나드는 버스킹(Busking)을 해보자고 한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학교 축제가 있었다. 청바지에 하모니카를 넣고 무대에 올라 제자들과 동료 선생님 앞에서 동요한 곡 연주하였다. 내년 '일신 축제'에는 아코디언 연주를 해보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일 년 동안 이 꿈 하나만 간직하고 있어도 즐거운 나날이 되지 않을까.

요사이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만 우리 학교도 '함께 만드는 축제'가 기본 방향이다. 체험 마당이나, 전시 마당, 공연 마당 아이디어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참여하고, 학급 단위 출연도 많기에 학교가 들쭉인다. 평생 남의 작품을 감상만하고, 객석에서 공연 보고, TV로 중계되는 스포츠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직접해보기 위해서는 학생 시절의 체험과 추억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국영수로 어렵게 시작한 인생, 음미체로 마무리해야 즐겁다."고 캠페인처럼 몇 차례 글을 썼다. 그리고 교직 사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틈틈이 말해 왔다.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렸겠지만,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묻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은 운동이나, 악기나 취미 생활이다.

바둑은 이제 인간이 AI에게 이길 수 없다. 머지않아 혼자서 다니는 자동차를 거리에서 보게 된다. 일본의 주첸공업이라는 회사는 선착순으로 신입 사원을 뽑기에 중출, 폭주족도 사원이 된다. 급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나는 상상해 본다. 지금 대입은 정시든 수시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이 주요 전형 과목이다. 앞으로 이 주요 과목을 암기하고 반복하고 응용하는 일은 AI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요 과목은 기초 교양으로 배우게 하고, 대입 신입생을 음악, 미술, 체육으로 선발하면 어떨까. 빨라지고, 풍부해지고, 편해지는데도 세상살이가 갈수록 힘들고 팍팍하다고 하니 정신 나간 소리일지라도 한번 해 본다.

기고

드라마 유감

미 중화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모 방송사에서는 국내 두 유명 요리사에게 흥어 요리로 외국인의 입맛을 잡으라는 미션을 주었다. 흥어의 향과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한 요리사가 만든 흥어 아이스크림을 맛본 외국인들은 절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맛 감정을 위해 선발된 외국인 5명은 흥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은 후 "흥어의 맛과 향이 아이스크림과 잘 어울린다."며 엄지손가락을 볼튼 치켜세웠다.

반면에 모 방송사의 드라마에서는 흥어를 먹다가 토해내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극 중에서 우연히 만난 한 젊은 여인이 그를 알아보고, 흥어를 못 먹고 구역질하는 장면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팬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는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렇다.

' 그렇다면, 흥어를 잘 먹는 사람은 인간적이 못하단 말인가.'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

을 인정하지만, 극 중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흥어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줄 소지가 다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흥어'라 칭하기도 한다. 흥어는 전라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고 건강식으로 효능이 뛰어나다.

흥어의 연골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콘드로이틴은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삭힌 흥어의 경우,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패스트푸드나 육류의 과다한 섭취로 산성화된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흥어의 살에는 주요 영양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어린이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 두뇌 발달에도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흥어는 뼈에 칼슘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 때문에 뼈가 다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흥어를 섭취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속이 쓰리고 위염에 노출되기 쉽다. 이때도 흥어는 위산의 불필요

한 분비를 막아 위염을 예방해 준다.

이렇게 좋은 음식인 흥어! 드라마에서 흥어를 잘 먹는 장면을 부각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회에 드라마 작가들에게 시청자로서 부탁 한마디 해야겠다. 일상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출생의 비밀, 악독한 행동 등 막장 드라마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청률만 올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듯이, 누구나 궁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대중성 있는 질 높은 드라마, 공감과 감동이 흐르는 훌륭한 드라마를 제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어느 한 장면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한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렇듯 국민의 심신이 건강해지고 경제 효과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드라마가 보다 많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無等鼓

남서태평양의 프랑스령인 누벨 칼레도니(Nouvelle Caledonie)는 유명한 관광지다. 영어식 표기인 뉴 칼레도니아(New Caledonia)로 더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선 2009년에 방영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 주인공들의 휴가지로 소개되기도 했다. 원래 이 섬은 1774년 영국 의 항해가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로 가다가 발견한 곳이다. 쿡이 자신의 출생지인 칼레도니아(스코틀랜드의 라틴어식 옛 이름)를 따서 뉴 칼레도니아로 명명했다. 이후 1853년 말 나

30여 개가 넘는다. 이 식민지의 독립이 좌절되는 것은 독립해서 약소국 국민으로 사느니 강대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대국 입장에서든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유지하려 한다. 실제로 누벨 칼레도니아에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20%가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경우 프랑스 배타적 경제수역의 약 40%를 갖고 있다. 이 식민지 덕분에 프랑스

누벨 칼레도니

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를 미군의 영

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태평양과 카리브 일대에 상당수의 식민지를 남겨 두고 있다.

누벨 칼레도니 주민 투표 결과를 보면서 과거 식민 지배를 당해 본 나라의 국민 입장에서 그들의 선택을 선택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광복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반일 감정이 남아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선택에 연민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누벨 칼레도니처럼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52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건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